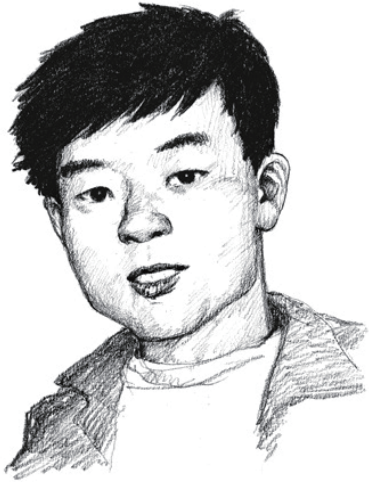




11월 9일

전태일열사 54주기 전국노동자대회



이러다 모두 망할라

모이자! 11월9일 토요일 14시, 서울 세종대로

만나자! 한 마음 한 뜻으로 윤석열 퇴진까지

정부는 논란과 혼란에 빠져있다. 공정과 상식은 고꾸라진지 오래다. 현실은 막막하다. 올해 세금수입이 30조원이나 구멍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 비정규직 인원이 역대 최고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낮은 곳의 삶이 더욱 고통스러워진다.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화오션 사장이 아이돌 가수와 웃으며 셀카를 찍어 논란이 됐다. 올해 한화오션에서 중대재해로 7명이 사망했다. 쿠팡 계열사의 대표이사도 국감에 출석했다. 5월 이후 과로사 등으로 7명이 사망했다. 대표이사는 환노위의 과로사 대책 논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 2022년 기준, 쿠팡 물류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이어 고용 3위 기업이다.

전태일 정신이 절박하다. 노동현장은 생존현장이 되고 취약계층은 더 열악해진다. 윤석열 임기 2년 반 내내 노조 혐오다. 노조법 개정을 두 번이나 거부했다. 노조 탄압을 의도로 회계 공시 방침, 타임오프 기획감독을 했다. 윤석열은 김건희를 감싸듯 자본을 감싼다. 중대재해 처벌법 약화 시도, 노동시간 개악 등을 시도했듯 반노동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경기지부 1만 조합원 함께 광장으로 나가자! 우리 손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함께 광장에서 퇴진까지



한국옵티칼지회 2명이 고공농성 중. 11월 2일 농성 300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연대버스가 출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지부

이번 11월은 유독 더 시리다

8월 30일부로 해고된 **현대위아사회지회** 조합원 26명의 투쟁이 두 달을 넘어간다. 동서페더럴모굴이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기까지 고통은 오롯이 조합원의 몫이다.

구미지부 한국옵티칼지회 고공농성이 300일을 넘어간다. 평택 니토옵티칼 앞 천막 농성도 계속 진행 중이다. 평택 니토옵티칼은 신규 채용을 진행했으나 지회 조합원 11명에 대한 고용승계 요구에는 묵묵 부답이다.

현대중공업지부 파업 집회 중 경비대가 난입해 집단폭력을 가했다. 척추 골절 등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외치며 농성했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에게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파업과 관련해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화오션이 작성한 **노조 대응 시뮬레이션 문건**이 공개됐다. 노조 혐오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부의 태도와 궤를 같이 한다.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2주기**.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는 지난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대통령실 이전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경찰의 증언이 나왔다.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에 매진하며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아리셀 참사 100일이 넘었다. 아리셀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유가족은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빅에서 농성 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요구에 대해 사측의 응답이 없다.



10월 12일(토), 제2회 경기지부장배 축구대회. 모든 경기가 치열했다. 5팀이 참가한 선수리그 우승은 모베이스전자지회, 10팀이 참가한 일반리그 우승은 시흥안산지역지회가 차지했다.

현대위아시화지회 투쟁에 아낌없는 연대를!

10월 10일(수) 14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현대위아시화지회 직접 고용 쟁취를 위한 경기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확대간부 400여명이 모여 끝까지 엄호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지회는 '고용노동부-동서페더럴모굴 본사-시화공장'에서 선전전을 매일 진행한다. 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이며 불법파견 정황이 명백하다. 조합원들이 직접 고용되는 그날까지 아낌없는 관심과 연대를 요청드린다.



여쭙소

여성조합원 설문 '여쭙소' 문항 중 임금과 노동안전 등 일터의 평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다 보았다. 성별 임금격차가 '있다'는 답이 43.5%로 절반이 안 됐지만 임금 격차의 사유를 표기한 답변까지 고려하면 80%가 된다. (고참 사업장은 답변의 오차가 없었다. 이들은 임금 구성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임금은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어서 '이 정도로 느끼고 있다'는 점만 확인하고 다음 기회에 자세한 조사를 해보는 편이 좋겠다.

설문 문항 중 답변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노동안전이었다. 비장애인 성인 남성의 몸을 기준으로 설계된 현장에서 일하면서 몸이 아프고 힘들다는 답변은 합해서 64%로 높았다. '반복 작업 횟수가 너무 많거나 작업 강도가 너무 세다'는 답변이 30%로 가장 많았고, 크거나 무겁다는 답변까지 합해서 64%다. 주관식 기타 의견이 가장 많이 달렸다.

고통이 있지만 말하지 못한 이유 중에는 여성 일자리가 줄까봐, 여성질환이라,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저강도라서 등이 각각 10% 정도 비슷한 비중이었으나 '특별히 말하기 어렵지 않다'는 답변이 42%라 다행이었다.

기획연재 2.

성인지적 노동안전보건활동, 해 왔고 해 간다

성인지적 노동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과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긍정 답변이 65%로 향후 여성위원회 활동에서 힘을 쏟을 부분이다. 흥미로운 점은 일상활동이 안정된 고참 사업장일수록 아프다는 답변이 적고 교육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는 것이다. 여성의 눈으로 바라봐야 알 수 있는 고통이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지만, 조합원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살피는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이 이런 성차화된 고통 또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소중한 결과다.

지부 여성위원회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지부 노동안전보건담당자들과 함께 '젠더 관점으로 본 노동안전보건운동'이라는 교육을 진행하고, 9월 코리아에프티를 방문해 여성조합원이 일하는 라인을 돌아봤다. "조합원들이 다 같은 데 파스 붙이고 있어서" 시작한 산보위 활동으로 작업대 높이, 중량물 무게, 임팩 보조장치, 버튼과 피스통까지 세심하게 조정된 현장이었다.

'성인지적 노안활동'이라는 안경을 쓰기 전에는 이름 붙이지 못했던 우리의 노력이 늘 있었다는 걸 느끼고, 여성위원회는 '막막하지만 그래도. 때려 치지는 말고 조금씩 할 수 있는 걸 해나가자'고 약속했다.

<다음편: 노동조합과 여성조합원>



우리는 기억해야 할 <조선인 여공의 노래>

10월 16일 여성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극장으로 향했다. 일제 강점기 오사카 방적공장에서 일했던 조선인 소녀 여공들의 삶과 투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식민지 최약자로서 인종 차별, 감금과 폭력, 노동 착취와 성적 착취 속에서도 일본인 여공까지 합세한 '방적공장 대파업 투쟁'을 벌였던 이들의 몰랐던 역사. 마음 아프지만 알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어서 뜻 깊었다. 세상 아무도 몰라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그들의 노래를.